

## 6.2 역대 회장 회고

### 학회와의 특별한 인연 50년



제33대(2013년) 회장 이상기

2023년 (사)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가 오십이지천명(五十而知天命)이 되었다. 인생의 나이 선에는 하늘의 명을 깨달아 세상 이치를 알게 된다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다. 학회 역사가 어느덧 반백년이 되면서 인간이 세상 이치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학회도 국내 미생물 분야 대표학회로서 확고히 뿌리 내리고 이제는 순리대로 국제적인 학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3년 우리 학회가 창립된 이래 나 개인도 근 50년간 적극적인 학회 활동을 통해 학문적으로 성장을 하며 미약하나마 미생물학자로서의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 문득 감회가 새로워진다. 그 동안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외에도 여러 학회에 참여하며 학술 활동을 해 왔지만 우리 학회와의 인연은 여러모로 더욱 특별한 것 같다.

학회와의 특별한 인연의 시작은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였다. KAIST 시절 지도교수이신 고 박무영 박사님께서 발기인으로서 학회 창립에 적극 관여하셨고 당연히 제자들의 논문 발표는 우리 학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나도 생애 첫 논문을 석사 과정 이수 중이던 1975년 우리 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하면서 학회 활동을 개시하였으니 지금까지 정확히 48년간 학회와의 인연을 쌓아온 셈이다.

대학원 수학 과정을 거쳐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외에서 박사 후 과정,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원, 순천향대학교의 교수로 자리 잡는 동안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면서 학회 활동을 지속해 왔으나 학회와의 본격적인 인연은 1991년 국제협력 간사를 맡으면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학회 운영에 참여하면서 영문지 JMB 편집 간사(1992), 기획 간사(2002)를 거쳐 2003년 간사장을 맡아 학회 운영을 총괄하였고 2013년에 드디어 학회장을 맡게 됨으로써 학회와의 인연에 백미를 찍게 되었다.

우연하게도 내가 학회의 주요 보직을 맡았을 때마다 학회 창립 매 10주년이 되는 해였다. 간사장을 맡았던 2003년이 학회 창립 30주년이었고 학회장을 맡았던 2013년이 학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여서 30주년 기념 학술행사에서는 실무 총괄을, 40주년 기념 학술행사에서는 학회를 대표하여 행사를 총괄하

였으니 실로 10주년 단위로 이어진 우리 학회와 나의 특별한 인연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런 보직 활동 외에도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 국제행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학회와의 인연을 이어 갔다. 2002년 국내 미생물학계가 역사상 처음으로 유치했던 국제학술대회인 GIM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Genetics of Industrial Microorganisms) 행사의 사무총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학회를 개최하였고 여세를 몰아 2020년에는 IUMS (International Union of Microbiological Societies) 국제학술대회를 국내에 유치, 조직위원장으로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과 없이 개최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2003년부터 다년간 학회 이사, 소식지 편집위원장(2003), 노운 박무영 교수 학술상 선정위원장(2004-2013), 장기발전위원장(2012) 등을 역임하였고 2016년부터는 KMB Academy 회원으로서 학회와의 50여 년에 걸친 끈끈한 인연은 현재진행형이다. 학회를 향한 나의 오랜 애정과 학회 발전을 위한 노력이 2004년에 공로상으로, 2014년에 학술대상으로 인정받게 되어 본인으로서는 큰 영예로 영원히 남게 된 것도 학회와의 기나긴 인연이 더욱 특별한 이유이다.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니 내 개인의 학문적 발전에 있어 학회의 역할이 실로 지대했음을 새삼 느끼게 되어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와의 50여 년의 인연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이번 50년사 발간에 있어 역대 회장의 일원으로 회고록을 집필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제 반백년을 맞은 우리 학회가 앞으로 일백년, 이백년을 넘어 무궁히 발전할 것을 기원한다.